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희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27-6.18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랑가라 컬리지 시설은 그냥 깔끔하고 평범했어요! 엄청 넓지도 좁지도 않고 수업하는 교실도 적당했어요. 각 건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다녔던 A빌딩 건물은 정말 평범했어요. 위치는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다니기에 편했고 스카이트레인이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까지는 10분 넘게 걸어가야 하지만 버스로는 바로 학교 앞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등학교 시간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홈스테이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가 좀 있었던 저로서는 아침마다 너무 힘들었어요!</p>
수업	<p><i>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처음에 테스트를 보고 반이 결정되는데 시험은 reading, speaking 그리고 아마 writing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leap3과 leap4 이렇게 두 개의 세션을 들었어요! 두 레벨의 공통점은 reading숙제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발표도 총 2번씩 있다는 점이에요! 차이점은, 레벨3일 때에는listening과 다른 소설책을 읽는 숙제가 더 많아서 과제 양이 정말 많았는데 레벨4일 때에는 조금 더 reading의 지문이 길고 어려워지긴 하지만 다른 소설책을 사서 읽어야 하지도 않았고 listening 숙제도 적었어서 레벨은 올라갔지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준비 정말 철저하게 해오시는 것 같았고 수업내용은 한 주마다 토픽이 바뀌는데 유익한 것도 많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파트너와 얘기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speaking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p> <p><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처음에 학교 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때 캐나다에 관련된 많은</p>

	<p>유용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홈스테이와 관련된 오티도 듣게 되는데 캐나다의 문화를 많이 알 수 있고 홈스테이 가족과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홈스테이 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 담당자분들 모두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피스에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되니까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p> <p>또 주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액티비티나, 카페 등 여러가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첫 주에 학생분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정보를 얻어서 도움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u>현지 기후 및 유의점</u></p> <p>저는 3월부터 거의 6월말까지 밴쿠버에서 지냈는데, 3월달은 정말 춥고 한국의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옷은 코트나 너무 두껍지 않은 무스탕을 입고 목도리를 많이 하고 다녔구요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3월달에는 눈도 왔었기 때문에 두껍게 입고 다녔어요! 4월달부터 날이 풀리나 싶었는데 여전히 추웠었고 4월 중순 지나면서부터 외투는 벗고 얇은 자켓이나 두툼한 맨투맨?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5월달에도 추울 땐 추웠어요.. 특히 비오는날!</p> <p>그리고 3월 4월에는 비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정말 꾸준히 왔기 때문에 항상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아침에 날씨가 정말 좋더라도 오후에 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이 때문에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우산은 항상 챙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p> <p>5월 6월달은 그래도 많이 따듯해지고 비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활동하기 좋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덥진 않으니 여름 옷은 많이 필요 없던 것 같아요.</p>
안전	<p><u>현지 안전 상황</u></p> <p>밴쿠버는 안전한 도시같아요. 가끔씩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며 다니긴 했어요!</p> <p>저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자주 갔었는데, 언제 한번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노트북을 훔쳐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외국인 분이 말해줬어요 그런점에 있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지갑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겠지만 한국보다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어요.</p>
숙소	<p><u>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u></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홈스테이에서 지냈는데 아주머니와 두 명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집은 복층이었는데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고 2층에는 방3개가 있었는데 한 방에서 홈스테이 가족들이 함께 쓰고, 저도 한 방 쓰고, 나머지 한 방은 다른나라에서 온 룸메이트가 썼어요. 방은 딱 제가 혼자 지내기에 좋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번 씩 방 청소를 해주시고, 빨래를 해주셨어요. 가끔 씩 침대시트도 갈아주셔서 항상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화장실은 룸메이트랑 같이 썼는데 그 학생은 일찍 떠나서 거의 저 혼자 사용하다보니 불편함은 아예 없었어요.</p> <p>제가 지낸 곳은 딱히 규칙이 있진 않았지만 밤 늦게 샤워를 하거나, 시끄럽게 통화를 하거나, 작은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었어요!</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 기타 ()</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아침에는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 않았고, 점심에는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셔서 항상 그것만 먹었어요. 음식은 거의 샌드위치, 빵, 요플레, 과일, 견과류 등 주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저녁은 밖에서 사먹거나, 집에서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외부식당은 가격이 한국보단 조금 비싸긴 하지만 자주 이용했었어요!</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저는 버스를 타고 통학했어요. 집이 조금 멀어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는데, 첫 번째 버스가 늦게 오면 그냥 두 번째 타는 버스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주로 버스 한 대 로만 통학했었어요. 이러다 보니 거의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도착하면 총 40분 정도 걸렸어요. 걸어가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요! 전반적으로 버스도 잘 되어있고, 스카이트레인으로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교통은 정말 편리했어요! 컴패스카드라고 교통카드인데 버스, 스카이트레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91달러로 한달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5만원	대한항공 왕복으로 약 85만원 정도 했었어요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약 160만원 = 2020달러 (홈스테이비용) 해외송금할 때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홈스테이하기 전에 미리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에요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한화다이렉트 여행보험 9만원 대 하고 갔었어요
숙소	한달에 800달러 = 약 70만원 x 2	홈스테이 비용
식비	약 60만원	(확실하지 않아요)
교통비	한달에 약 8만원 x 4	먼슬리패스 구입
책값	3만원	
기타1	35만원	시애틀 여행(숙소.교통비 포함)
기타2	@	쇼핑(옷.화장품.생필품)
기타3		
합계	약 600만원 이상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제가 위에서 홈스테이 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썼었던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해외송금으로 2020달러를 보낼 때 캐나다 달러로 보냈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로
미국달러로 보내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캐나다 학교 오피스에서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 나머지 돈을 수표로 바꿔 은행에 가서 바꿀 수 있었어요. 이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머리 아팠었는데 혹시나 이런일이 다른 학생분께 생길까봐
말해드렸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너무 간절했는데 이렇게
다녀와서 너무 좋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물론 생각만큼 영어가 확실하게 많이 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있어서는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캐나다인 학생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등 다른 아시아계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특히 중국인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한국친구가 있더라도 영어로 대화해서

지낼 수 있는 외국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영어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생각만큼 외국인 친구들과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로 마음이 맞고 해야하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영어 스피킹 실력도 올림과 동시에 여러 곳에 놀러다니고 여행함으로써 문화체험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단점이 있었다면 홈스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 만족스럽거나.. 좋지 않았었던거 같아요. 물론 좋은 점도 많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었는데, 저와 함께 지냈던 가족은 항상 시끄럽고 아이들이 조금 어려서 울고 싸우고 하는 것이 가끔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라서 어리니까 싸울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소리를 껍뻍 지를 수 있지만 자주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예민하거나 민감한 성격이신 분들이 그런 가족과 사는 것이 되게 힘들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조금 예민한 성격이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를 달래주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국 오기 전까지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가며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인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심을 키워야 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실력도 향상되었지만 그보다 더 새롭고 기억에 남을만한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즐겁고 그 과정에서 느끼거나 배운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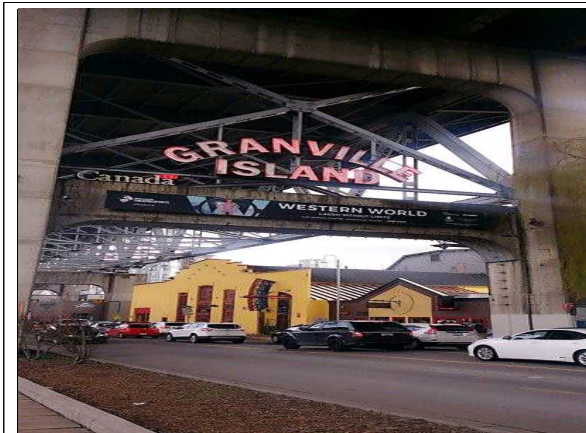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잉글리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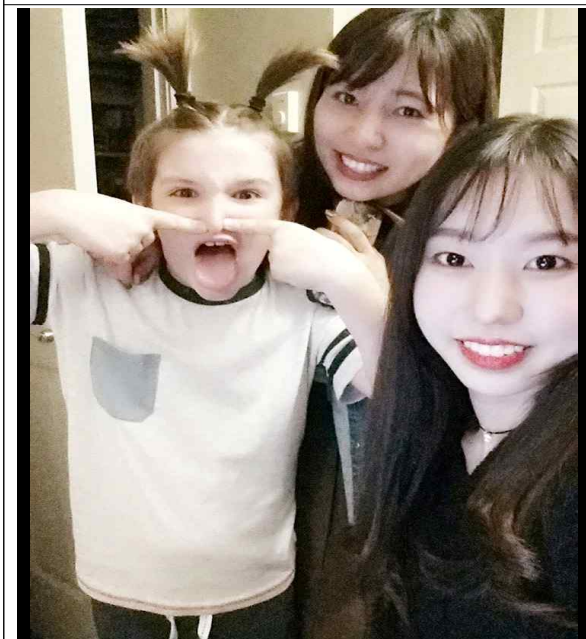
Deep cove - 노스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입구



발표 포스터 만들기



일본인 룸메 아야카와 막내 리스



시애틀에서 크루즈 탑승